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

평화 · 환경 · 발전 넥서스를 통한 세계접경지역의 평화구축

포럼 개요

일 시	2020. 12. 3(목)~5(토)
주 최	강원도, 철원군
주 관	(사)PLZ페스티벌
협력기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재)지구와사람
참가기관	UNESCO, UNESCAP, UNEP, UNDP, UNWFP, UNWTO, UNMAS, UNODC 사단법인 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중앙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
언 어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진행방식	온라인 컨퍼런스 (유튜브를 통한 한국어/영어 실시간 중계)

개최 목적

○ 접경지역의 평화, 환경, 발전 문제에 대한 담론 및 의제 설정에 기여

○ 접경지대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지식과 경험 공유

○ 한반도 DMZ, 특히 강원도와 철원의 평화, 환경, 발전 넥서스에 대한 연구

○ 향후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학술, 실천 네트워크 구축

개최 취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불평등의 증가, 세계적 빈곤, 이주, 식량 위기, 식수와 자원 부족 및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분야에서 실행되는 정책들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지속 가능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체적(holistic)으로 접근해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변화를 모색하는 전체적인 정책 접근방식은 기존 관심사 목록에 단순히 새로운 정책 문제를 추가하고, 이것을 특정 정책기관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체적 접근법은 우리 시대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심화된 사회적 질문을 식별하고 진단한 후, 구조적 원인에 대처하는 통합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이들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에서는 접경지역에 초점을 두고 평화, 환경, 발전의 분야에서 상호 연결된 위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결된 위기의 축소판으로서의 국경과 접경지역

기술발전, 여행과 무역의 증가로 세계 각국의 상호 연결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일의 모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 및 현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은 국경선이 여전히 국가들간의 협력을 방해함을 명백히 보여 준다. 전세계 인구의 약 90%가 코로나 19 발생으로 각기의 나라에 갇혀 있었고 각 나라의 정부는 방문객(나라에 따라 자국시민도 포함)에게 국경을 폐쇄하는 등,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세계 145개의 육상 기반 국가에는 국경이 존재한다. 경계선, 혹은 접경지역은 국가주권과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방어선을 설정하며, '우리'와 '그들' 간의 차이를 만든다(Goodhand 2008, Migdal 2004). 접경지역은 지역 고유의 방식에 따라 기능하는 단위이고 이들의 사회 경제적, 물리적 조건은 국경과 접경지역을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조건과는 다른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접경지역은 한 나라의 본질, 특히 그 나라의 중심(the center)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cott 1976, Goodhand 2008).

국경은 개방형, 규제 혹은 통제형, 그리고 강화형 등 세 종류로 나뉘며 경우에 따라 방비가 덜한 국경과 방비가 엄격한 국경으로 나뉘기도 한다. 방비가 덜한 국경은 개방되어 있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제어되는 국경을, 방비가 엄격한 국경은 철조망, 벽 혹은 군사 경계와 같은 강화된 국경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가속화로 많은 나라가 자국 국경을 열고 있지만, 국경대립이 첨예한 지역은 치안의 강화와 무력 성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Gready, 2004, p.352).

접경지역은 종종 국가간 분쟁의 주요 무대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어도 46개의 국경 분쟁이 발생했다. 이중 32건이 21세기에 발생했고, 그 중 3건의 분쟁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 32건의 국경 분쟁 중 10개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거주민들의 삶, 사회구조, 경제,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분쟁과 폭력의 원인인 국가 안의 불평등이나 국가 간의 불평등은 접경지역을 개발도상국민의 불법 이주, 불법 상품의 밀수, 인신매매의 장소로 만든다. 국경선이 부와 가난을 분리하는 접경지역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 문제는 마약밀매나 불법이주가 아닌 근본적 불평등이다. 따라서 불법이주나 마약밀매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국경보안 또는 자기보호 중심 접근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More 2011).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사막, 삼림지대, 습지, 담수와 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지역으로 구성된다. 군사적으로 요새화된 접경지역은 그 지역의 생태계를 심하게 교란시킨다. 동식물을 그들의 지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동식물의 자연서식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자연적인 물의 흐름, 야생동물의 계절 이동, 산불과 같은 자연의 패턴을 변화시키며 사람과 동물에게 미치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악화시킨다. 국방 관련 법률이 군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환경법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이후, 많은 국가의 접경지역 생태계에 가해지는 위협은 증가추세다. 국가들이 난민의 이주를 막기 위해 국경에 벽을 쌓고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동안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접경지역을 떠나거나 국경을 넘는 난민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접경지역은 갈등, 배척,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고립된 주변지역일 뿐 아니라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행, 무역, 이주, 지식 교환 및 정치적 동맹의 국가적, 초국가적 네트워크 궤도에 위치한 장소이기도 하다(Aggarwal 2004). 전쟁, 갈등, 긴장, 협력 혹은 이들이 결합해 생성된 권력관계와 같은 요소들이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규모(세계, 국가, 지역)로 경계선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접경지역은 자연을 반목(antagonism), 배척, 혼란시키는 원천임과 동시에 평화, 포용, 생태적 삶의 원천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의 생태와 평화

자원 분쟁과 희소성으로 인한 분쟁의 위험이 전세계적으로, 특히 접경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폭력과 분쟁은 환경파괴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전환적(transformative) 방식으로 이들의 상호연결성에 접근할 때, 생태통합적 선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생태환경 안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릴 수 있다.

생태적 문해력과 평화연구는, 평화의 생태적 영역과 생태학의 평화구축 잠재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힐 전체적 접근법을 공식화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전체적 접근법은 현재의 희소성–분쟁 패러다임을 협력적 자원관리 형태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Amster 2016).

일반적으로 평화는 폭력의 부재, 축소 혹은 모든 형태의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분쟁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중 전자, 즉 폭력의 부재는 정적인 상태의 평화, 또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peace in negative sense)를 의미한다. 그에 반해, 적극적 의미의 평화(peace in positive sense)는 갈등이 창조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결되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

평화(혹은 폭력적 분쟁)의 원인과 영향은 환경, 인간복지, 사회정의와 평등, 국가간 혹은 지역간 불균형, 문화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세 가지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언급된 다양한 측면들이 평화(혹은 폭력적 분쟁)의 원인과 영향들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평화, 폭력적 분쟁의 사례들은 다양한, 그리고 중요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평화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극적 혹은 적극적 의미의 평화달성을 위해 안보 중심의 접근법과 평화 중심의(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접근법이 서로 경쟁해 왔다. 안보 중심의 접근법은 다음에 기재된 네 개의 핵심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 강력한 능력과 사악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한다는 인식
-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폭력에 의한 확실히 현존하는 위험
- 사악한 집단을 물리치거나 억제하기 위한 힘
- 평화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인 안보

이 접근법은 손자(孫子) 혹은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든 그 누구의 이론에 근거하든, 힘의 불평등, 우월한 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접근법은 사악하고 강력한 집단을 패배시키거나 통제하여 선한 집단으로 전환할 때에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상반되는 평화접근법 또한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 해결되거나 평화로 전환되지 않은 분쟁의 존재
-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 공감–창의–비폭력을 기반으로 한 분쟁의 평화로의 전환
- 안보에 있어 최선의 접근방식인 평화

이 평화접근법은 갈등상황에서도 모든 당사자에게 지속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존재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자원의 균등분배 혹은 힘의 균형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Galtung, 1996).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전자는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려 하는 반면, 후자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예를 들어 갈등과 폭력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후자는 불가침 또는 신성한 가치로써의 비폭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길을 추구한다. 이 비폭력 가치는 모든 형태의 생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평화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또는 환경에 대한 평화적 관점으로 우리를 이끈다(Johansen 2007).

자연이나 환경의 차원에서도 평화는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 둘 다로 해석될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연의 평화는 자연이나 환경(인간, 동식물, 미생물, 바이러스까지 포함하는)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적극적 의미에서 자연의 평화는 투쟁이 아닌 종(species) 간의 협력 또는 자연과의 조화를 말한다. 특히 후자의 입장은 다양한 유엔결의안이 기반한 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며, 생명은 에너지와 영양분의 공급을 보장하는 자연계의 지속적인 기능에 달려있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은 인간의 창의력 발달 및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 모든 형태의 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하며 인간이 부여한 가치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지속적 혜택은 인간에 의한 과도한 착취와 서식지 파괴를 통해 위험에 빠져 있는 생태계와 생명유지시스템의 개선과 보전, 그리고 생명체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동물, 식물, 미생물 및 무생물 환경에 대한 유해 행위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류의 공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인류가 살고 일하는 세계의 통합된 본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체적인 거버넌스 접근법을 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경쟁은 분쟁을 유발한다. 반면, 자연과 천연자원의 보존은 정의에 기여한다. 자연과 천연자원의 보존은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학습하고 전쟁과 군비를 포기할 수 있을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출처: 세계 어머니 지구의날 (A/RES/63/278), Harmony with Nature (A/64/420) 및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0/1)에 대한 UN의 결의안)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은 환경 및 천연자원 문제가 종종 갈등 및 폭력과 얽혀 있는 국경지대의 맥락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발전

접경지역의 사람들은 뒷전으로 미뤄질 위험이 더 크다. 때문에, 유엔 2030 아젠다와 SDGs의 맥락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주권국가에서 가장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많은 부분이 합법적이지 않은 "회피의 공간"이거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공간"이다(Goodhand 2008, p.234).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산간 지역민의 농업 관행은 종종 세금 회피를 위한 "탈출농업"(escape agriculture)이라고 불린다(Scott 1976, Goodhand 2008, p.234). 아프가니스탄의 구릉지역과 사막에 거주하는 파슈툰족은 자신들을 국가 통제하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파슈툰족과 구별 짓는다(Barfield 2004). 에티오피아의 농업, 목축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산과 통제능력을 넘어선 가치, 규범,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Turton 2005). 비슷한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종종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접경지역이 경제적으로 한계적이고 행정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국경은 밀수나 다른 조직범죄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국경을 넘는 무역과 교류의 장소이기도 하다.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지역과 같은 경우, 전체 지역이 국경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에 의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민들은 경제적, 행정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생산, 재분배, 보호 및 재생산이 가능한 자체경제와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경선은 또한 경제를 연결하고, 문화와 환경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기회를 창출한다.

접경지역은 다양한 방식의 평화와 전환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전략지역, 완충지역, 지역 및 국제권력의 현장 혹은 교차되는 분쟁, 재화와 서비스, 무기, 사람 혹은 이념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접경지역 커뮤니티는 동일한 성격을 지닌 그룹으로 구성된 집단(homogeneous)이 아니다. 일부 그룹은 엄격한 국경 규제로 이득을 보는 반면 어떤 그룹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도 한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활동은 종종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 일어난다.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증가이든, 통제되지 않는 상품과 부의 교환이든, 또는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의 영향이든, 이러한 세계화된 현상들은 종종 국가 주권을 넘어선다. 영토와 특정기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행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이론은 다양한 접경지역 제도와 관행이 접경지역민들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주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념과 실천, 그리고 그들이 국내 및 국제기관 및 구조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impacts)에 대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접경지역에서 평화구축

많은 경우에 국경은 분쟁의 결과물로 생겨나고 바뀌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정된 국경에 대한 규범은 더욱 강력해졌다(Atzili 2007). 이 두 가지 요소의 영향 아래, 국경과 접경지역 관련 연구는 평화, 교신, 통일과 연결보다는 분쟁, 분리, 분열, 그리고 장애물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다(Newman and Passi, 1998). 전쟁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문헌의 양은 전쟁 후 편찬된 평화의 정치경제학의 문헌보다 훨씬 많으며, 특히 접경지역의 맥락에서 평화로 가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평화, 환경, 발전 넥서스를 통한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을 주제로 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이슈를 논의하려 한다.

- 평화를 위한 전통적인 주권국가 중심의 접근법의 기반이 되는 개념, 가정, 이론들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
-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발전,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 이론 그리고 실천
- 평화를 위한 대안적 전략과 경로

세션 개요

개회식

이번 포럼은 향후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연구, 실천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이에 행사를 주최, 주관한 국내외 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각계의 메시지를 전한다.

기조강연

이인영 통일부장관 "한반도와 DMZ에서의 평화구축"

대한민국의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놓인 남북한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며 70년의 특수 휴전 공간으로 생태화 된 DMZ의 평화구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전해철 국회의원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과 법 · 제도적 지원 방안"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국회의원이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발의의 경험을 나누고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에 대해 강연한다.

1세션

21세기 국경과 접경지역

제1세션에서는 평화, 환경, 발전의 관점에서 국경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국경 및 접경지역의 자연과 평화로 향하는 방법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국경의 특성을 정의하는 주요 관점은 무엇인가? 접경지역의 분쟁, 폭력 및 평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위의 주요 질문에 근거해 이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국경과 접경지역의 고찰, 국경과 접경지역에서 고려해볼 만하고, 실행해볼 만하며,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과의 차이점, 접경지역의 정치적 경제,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법 등이다.

2세션

접경지역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제2세션에서는 접경지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평화 접근법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실행되는지, 접경지역 거주자들이 일상적 관행, 규범, 정치에서 국가와 국가적 시스템 혹은 국제적 구조나 제도의 개입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한반도의 DMZ와 같은 특정 상황의 접경지역의 다양한 평화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갈등의 원인, 평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수단, 이 평화의 수단에 대한 접경지역에서의 적용, 접경지역의 평화 접근방식의 다양한 결과와 영향과 함께, 소외계층의 시각을 통한 평화의 개념, 이론, 관행을 살펴보고, 접경지역에서 평화적 수단을 적용한 성공과 실패 사례, 그리고 DMZ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시도와 DMZ 안팎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3세션

접경지역의 평화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

제3세션은 접경지역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에 필요한 환경과 자연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이다. 먼저 접경지역에서 평화구축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연에 접근해야 하는지, 자연과 환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개념과 접근방식이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위의 주요질문에 근거해 이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제는 첫째, 환경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의 기회와 도전 중 특히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의 맥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자연의 헌법적 권리와 같은 개념과 접근법, 둘째, 접경지역 맥락에서 새로운 개념과 접근법이 적용된 관행, 그리고 이들의 도전과 기회, 셋째, 접경지역의 맥락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환경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의 의미 등이 있다.

4세션

자연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평화와 발전의 관계

접경지역에서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이 세션의 주요 논점이다. 먼저 환경과 평화를 통합하는 개념, 이론, 관행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바이오크라시(Biocracy) 등 환경, 자연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과 개념이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에서 가지는 역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문화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의한다.

5세션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변화

부당한 구조의 변화, 평화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저로 한 정책과 제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접경지역의 발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접경지역의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민주적, 참여적 의사결정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접경지역의 주요 경제, 사회 발전 문제, 주류 경제, 사회 정책과 그것의 한계, 지역 민주주의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도 논의되는 세션이다.

6세션

접경지역에서 UN의 평화, 환경, 발전 관련 활동

제6세션은 접경지역의 평화, 환경, 발전에 관한 유엔의 프로젝트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UN기구 대표와 실무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라운드 테이블

마무리 토론의 장으로 지난 3일간 진행된 토론을 요약하고, 그 토론에서 얻은 교훈과 결과를 정리하는 세션이다. DMZ 내, DMZ를 넘어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책입안자들과 대한민국 소재 유엔 기관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남북 협력의 기회, 실현 가능한 정책, 제도, 평화에 대한 통합 접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다.

일정표

12월 3일(목)

전체 MC : 김고은 (아리랑국제방송)

시간	구분	주제 및 내용
14:00	개막공연	**Long Pause** 바이올린 Nilufar Mukhiddinova, 피아노 백동현
	개회	• **환영사** 우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현종 (강원도 철원군수) • **축 사** 송영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 (국회의원) 박종호 (산림청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폴 래드 (UNRISD 소장)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
15:00	기조강연	• 한반도와 DMZ에서의 평화구축 이인영 (통일부장관) •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과 법 · 제도적 지원 방안 전해철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17:00	제1세션	**21세기 국경과 접경지역** 사회 : 이일청 (UNRISD 선임연구조정관) 〈발제〉 • 국경의 개념적 틀 김재한 (한림대 교수) • 주변지역 재검토: 국가 경계에서 갈등과 변화 조나단 굿핸드 (영국 SOAS 런던대 교수) • 경계에서 바라본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 패트릭 미한 (영국 SOAS 런던대 교수) • '평화로운 주변지역?' 인도 접경지역의 개발담론의 역설과 약속 님미 쿠리안 (인도 뉴델리정책연구센터 교수) • 시각적 자문화 기술학(Autoethnography) 및 국제 보안: 한국 DMZ의 통찰 롤랜드 블리커 (호주 퀸즐랜드대 교수) • 아프리카 접경지역의 시사점 릴리 머레이 (유엔개발계획 아프리카접경지역연구센터 정책연구 및 데이터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	구분	주제 및 내용
22:00	**제2세션**	**“접경지역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교수) **〈발제〉** • 평화의 최전선: 세상을 바꾸는 내부자 가이드 세브린 에테세르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 아프리카 젠더 평화구축의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미니스트적 국경을 사고하다 하이디 허드슨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스테이트대 교수) • 물, 국경, 평화구축 에리카 베인탈 (미국 듀크대, 중국 듀크쿤산대 교수) • 평화 형성 과정 올리버 리치먼드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질의응답〉**

12월 4일(금)

전체 MC : 김고은 (아리랑국제방송)

시간	구분	주제 및 내용
10:00	**제3세션**	**접경지역의 평화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 (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 사회 : 두냐 크라우스 (UNRISD 연구원) **〈발제〉** •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쳐 프로그램: 비인간중심주의 세계관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 (UN 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접경지대의 경합적 성격: 생태, 문화, 정책 데이비드 하블릭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 •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본 생태계의 발전과 지구법의 접점인 접경지역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DMZ와 DMZ의 법적실체: 지구 법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간과 생태계의 반응하고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 영적 인본주의적 관점 왕 지안바오 (중국 북경대 고등인문연구소) **〈질의응답〉**
15:00	**제4세션**	**자연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평화와 발전의 관계** 사회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자연과 함께 DMZ의 평화 만들기: 미래 생태문명의 경계와 완충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 안나 그라이칭 (미국 버몬트대 선임연구원) • 자연의 경계를 넘는 신탁 관리(Trusteeship) 클라우스 보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 • 공원에서 법인으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관심의 중심에 “자연”을 두다 김락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교수) • Biocracy에서 Biodiplomacy까지: 자연, 법, 윤리 코스타스 콘스탄티노 (키프로스 키프로스대 교수) • 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전환(들): DMZ에서 ‘국가–자연’의 관계성 변화의 새로운 정치생태학을 위하여 김준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 Biocracy의 등장과 인식공동체로서 국제적 확산 임채원 (대한공공정책학회 회장) **〈질의응답〉**

시간	구분	주제 및 내용
17:30	**제5세션**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변화** 사회 :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부소장) **〈발제〉** • 국경을 초월한 사회 시민권 프레드 코코즐리 (미국 세인트존스대 교수) •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환경정책과 공동체 정치 그리고 비공식성 안드레아 진자니 (이탈리아 볼로냐대 연구원) • 아프리카 뿔 접경지역의 생활과 이동성 로라 하몬드 (영국 SOAS 런던대 교수) • 아프리카 국경 관리에서 누락된 요소: 국경을 초월한 지원 폴 누겐트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 • DMZ 및 인접지역의 현재, 발전을 위한 이슈와 쟁점 정은영, 이영주 (사단법인선 변호사) • 강원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존속과 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질의응답〉**
21:00	**제6세션**	**접경지역에서 UN의 평화, 환경, 발전 관련 활동** 사회 : 이사벨 캄프 (UNRISD 선임연구조정관) **〈발제〉** • 유엔개발계획 아프리카 접경지역 연구센터 – 목소리를 높여 아프리카 접경지역의 가능성을 여는 것 크리스토퍼 탠그리 (유엔개발계획 아프리카 접경지역연구센터 파트너쉽 프로그램 팀장) • 접경지역의 환경 및 기후안보 지원 실리아 해일리 (유엔환경계획 환경평화구축 프로그램 책임자) • 문화, 분쟁, 평화, 그리고 발전 카와카미 카오리 (유네스코 비상대비 및 대응단 단장) • 유엔마약 · 범죄사무소 지역대표의 경험 아마도 필립 데 안드레스 (유엔마약 · 범죄사무소 동아프리카 지역대표) • 국경지대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인으로서의 관광: 교훈, 기회, 그리고 도전 마르첼로 노타리아니 (유엔관광기구) • 평화구축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의 기여 애비게일 하틀리 (유엔지뢰대책기구 정책, 옹호, 공공 정보 책임) **〈질의응답〉**

12월 5일(토)

전체 MC : 김고은 (아리랑국제방송)

시간	구분	주제 및 내용
10:00	**협업세션** 접경 인문학 연구단	**동아시아 접경지역에서 평화 프로세스** 사회 : 차용구 (중앙대 교수) **〈발제〉** • 2019년 한일 갈등 속에서 대마도의 변화 임경화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 한국 DMZ의 드러난 상처 조 앤 (미국 개릿신학대 교수) • '경합하는' 접경지역의 발전: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전망과 도전 치 나오미, 이와시타 아키히로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 • 이동하는 북한여성들과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가족의 양가성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중러 접경 두만강 국제도시 개발에 내재하는 평화구축의 한 양상 전우형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교수) **〈토론〉** 손병권 (중앙대 교수) **〈질의응답〉**

시간	구분	주제 및 내용
13:00	**협업세션**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	**동아시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개발에 대한 지역적 관점** 사회 : 신혜란 (서울대 교수) **〈발제〉** • 지정학과 발전: 양안 관계에서 킨멘과 마츠 제도의 국경 슈진유 (대만 국립대만대 교수) •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동아시아의 섬들 사이의 국경성과 영토성 야마자키 타카시 (일본 오사카시립대 교수) • 경계처럼 바라보기: 한반도 경계연구의 성찰과 전망 이승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동아시아 접경지역의 평화로운 지정–지경학적 발전을 위한 로컬 행위자들과 초지역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박배균 (서울대 교수) **〈질의응답〉**
15:00	**제7세션**	**라운드 테이블** 사회 : 폴 래드 (UNRISD 소장),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 • 포럼 경과보고 사무엘 브룰리사워 (UNRISD 연구분석관) **〈패널〉** • **패널** 이소영 (국회의원) 김광길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안병진 (경희대 교수)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부소장) 스티븐 클링어빌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장)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